

3. 사회문화

민족 구성

- 전체 인구의 96%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

언어

- 공용어: 덴마크어, 상용어: 덴마크어, 영어, 독일어

종교

- 덴마크 루터복음교(87%), 기타: 가톨릭, 침례교, 유대교 등 (12%)

한국 문화 유입 정도

- 덴마크에서의 한국 연구는 1968년 코펜하겐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서부터 시작되고, 그곳이 중심을 이룸. 처음은 단지 동아시아학이나 기타 다른 학문 전공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음.
- 그러나 2년 뒤 한국어학으로 학사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, 1975년부터는 동아시아연구소에 한국학과가 설치되면서 석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졌음. 한편, 코펜하겐의 한 문법학교에서는 한국 지리와 역사에 관한 강좌를 두고 있고, 로스킬데대학에는 1974년 몇 명의 학생들이 한국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하였음.
- 저술활동으로는 1976년에는 『사회주의국가 조선의 경제

개발계획의 사례연구 Socialist Korea :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』라는 책이 코펜하겐대학에서 출판되었으며, 사회과학연구소에서 「196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경제개발」, 사회학연구소에서 「확대되는 한국의 경제산업체계에서 전통적 가족의 서구형가족으로의 이행」이라는 연구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음.

- 동아시아연구소에 한국의 언어·역사·문학 관계의 도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, 코펜하겐에 있는 왕립도서관의 동양학부는 1960년대 이래 한국학 도서를 꾸준히 구입하여 1980년 역사·철학·종교·예술·문학·정치·경제·민속 등의 분야에 걸쳐 약 3,000권의 장서와 150종의 학술지를 갖추었음.
- 한국 유물을 소장하여 이름난 곳은 국립박물관인데, 칼바크(Kalbach) 수집품으로 알려진 도자기를 비롯하여 서화와 다수의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음. 1966년 박물관 전시실에 우리나라의 가옥이 세워지고 그 안에 도자기와 서화류를 배치하여 전시회를 가진 바 있음. 1974년 「인간과 신령」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시회가 열렸는데, 그 일부로 우리나라의 마을 모습과 4개의 굿장면이 전시되었음. 이 박물관은 또한 왕립도서관과 공동으로 「한국의 인쇄술」을 비롯하여 한국 미술·문학·도자기·가구·공예·복식 등의 전시회를 여러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음.
- 한편, 2009년 4월 11일에는 전남 강진군에서 80여일간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8개국, 9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고려청자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알린 바 있음